“Bio-IT 접목이 성공의 열쇠”

GSK Ingram 회장, IT산업 발전 모델로 바이오제약과의 연결성 강조

2002년 3월 11일 한국을 방문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최고경영자인 로버트 A. 잉그램(Robert A. Ingram) 회장은 3월13일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국가경쟁력 차원의 전략적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잉그램 회장은 세계 최대 제약회사를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로서 세계 제약산업의 주요 이슈, 신약개발, 주요 질병군 연구성과 등 최근 제약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고 한국의 제약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잉그램 회장은 한국 바이오 제약산업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조건으로 우수한 인적자원과 다이나믹한 국민성을 첫 번째로 꼽으면서,““한국인은 방향과 역할만 제시된다면 흐름을 만드는 데는 어떤 민족보다도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주장하고 IT산업의 예를 들었다.

10년 전만해도 한국이 세계적 IT강국이 될 것을 예측한 이는 없었으나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모토로라, 노키아 등 세계 유수의 IT기업들이 한국에 R&D센터를 세우는 등 한국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한국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한국의 IT 경쟁력이 바이오(생명공학)의 정보과학화와 연결돼 한국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의 핵심은 인간지놈 프로젝트와 유전자 기능을 찾는 단백질체학(Proteomics)인데, IT기술 기반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IT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개발 프로세스는 10-15년 이상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 투자, 낮은 성공률, 여러 차례의 임상실험과 까다로운 승인절차 후에도 상품화 및 글로벌 마케팅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투자, 고위험 산업이어서 단순하게 연구개발만 집중하는 접근은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잉그램 회장은 수많은 바이오벤처들의 연구산물이 생물학적 업적으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전세계 의약시장을 꿰뚫는 전략적 투자 능력과 사업추진 네트웍, 또 무엇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바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낼 것을 당부했다.

또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170년 이상 최고수준의 경쟁력과 노하우로 세계 시장을 주도한 GSK가 한국의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피력했다.

GSK는 한국과의 전략적인 WIN-WIN 관계를 성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해오고 있는 한국GSK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잉그램 회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GSK 본사 차원에서 지원규모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잉그램 회장은 한국의 바이오제약산업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1980년대 최대의 관심사였던 유전공학이 한 순간에 사라진 것을 예로 들며 “바이오 연구에 대한 열기, 투자의지는 높지만 한국의 경쟁력에 맞는 Value Chain을 찾아 개발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적 강점(IT)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범부처적 큰 그림을 그린 뒤 특성에 맞고 자신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른바 바이오 분야 전체를 교통 정리할 수 있는 종합계획표(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화학저널 BioChem 담당 김경수 기자>

<Chemical Daily News 2002/03/19>